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4. 12.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스마트시티과
담당	과장 정윤희, 스마트인프라팀장 신무남, 담당 김동택(453-7474)

“다목적 CCTV 확충·개선…시민 안전 촘촘히 살핀다”

인천경제청, 오는 10월까지 송도 10·청라 4곳 등에 61개 새로 설치
저화질 CCTV, 8백만 화소로 교체…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에 고정형 카메라도 설치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내 CCTV를 확충하고 교체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.
- 구체적으로 송도국제도시 10개소(45대), 청라국제도시 4개소(16대)에 다목적 CCTV가 새로 설치된다. 청라에 있는 215대의 낡은 회전형 카메라는 교체하고 안전 강화와 관제력 향상을 위해 58곳에 고정형 카메라 147대를 설치한다.
- 인천경제청은 민원 발생, 경찰서와 해당 구청의 설치 요청 등을 종합 검토, 설치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했다.
- 특히 청라의 경우 지난 2012년 ~ 2014년 설치된 카메라의 화질이 낮아 사건사고 발생시 영상이 선명하지 못해 식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종전 41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한다. 또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각지역을 줄이기 위하여 고정형 카메라를 추가 설

치한다.

- 인천경제청은 이달 시공사와 감리단의 확정 설계를 마무리 짓고 오는 5 본격적인 현장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.
- 장병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“이번 CCTV 확대 설치·개선을 계기로 앞으로 IFEZ가 더욱 안전하고 범죄 없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 CCTV는 송도 1159개, 청라 382개가 각각 설치돼 있고 영종하늘 도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로부터 이관 중에 있으며 미단시티는 132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.

<관련사진>

